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위해 80명 안전체험 교육

정읍시가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신속한 비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익산 안전체험 교육장에서 비상 대응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시 소속 현업 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안전의식을 높이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추락, 감전, 질식 등 주요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과 응급조치 방법을 체험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재난 시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직접 수행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익산 안전체험 교육장의 △산업안전체험관 △전기안전체험관 △스마트안전체험관 △가상안전체험관 △응급처치체험관 등 전문 시설을 활용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직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가 지난 10일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재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병 예방을 위해 마린 폼롤러를 활용한 실습 교육으로 진행했다.

근골격계질환은 목, 어깨, 허리, 팔다리에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이에 시는 올해 초 근골격계 부담직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뼈, 관절, 근육 통증 완화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정읍요가아카데미 이동훈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폼롤러를 활용한 전신 스트레칭과 거북목, 손목 통증 오십견, 요통 개선을 위한 자세 교정법을 직접 배우며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미래 100년 먹거리’ 선제 대응

정읍시, ‘2027-28년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열어… 26건 발굴 추진 방안 점검

정읍시가 ‘미래 100년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2027-28년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1400억원대 환경시설 사업을 포함한 26건 사업의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과 20여 명의 국소장 및 실과소장이 참석해 사업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애로점 등을 내실 있게 점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바이오가스 화시설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1436억원) △상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22억원) △연자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305억원) △신대인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20억원) △바이오 기반 반려동물 용의약품 분석인프라 구축(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 중앙부처, 국회 등과의 긴밀한 삼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발굴된 신규사업이 실제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국가예산 반영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내년도 부처안이 확정되기 전인 2028년 4월까지 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당성 확보 및 중앙부처 방문 등 선제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시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어촌 맞춤형 보건사업 나섰다

상하면보건지소 신축 준공… 28년만에 부활

고창군 상하면보건지소가 폐지된 지 28년 만에 신축 보건지소로 부활하며, 농·어촌 맞춤형 보건사업에 나섰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남(11일) 오후 상하면보건지소 신축 준공식을 열

었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관내 기관 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상하면보건지소는 2024년 1월부터



총사업비 15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359.97㎡ 규모로 건립됐다. 다양한 의료 장비와 편의시설 등을 갖춰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상하면에선 1988년 상하, 해리, 심원을 통·폐합한 '해리통합보건지소'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보건지소가 폐지됐다.

28년 부활한 상하보건지소는 내과, 한방 진료는 물론 지역맞춤형 보건사업과 예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 제4차 정기회의 개최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위원장 박현규)가 지난 11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소회의실에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는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과 갯벌의 수행기관으로 고창군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각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과 갯벌 결과보고가

진행됐다. 축전 기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의 참여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등 약 3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는 본연의 세계유산 보존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협의회는 축전 프로그램 검토, 현장 자문 등을 통해 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축제 운영의 원

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왔다. 앞으로는 고창 고인돌 유적과 고창 갯벌의 장기적 보존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박현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장은 “고창의 세계유산을 사랑하고 축전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과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창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노을빛정원 가을사진 공모전’ 완료

부안군, 가을 정원 담은 110편 중 11작품 수상작 최종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 출포만 노을빛 정원(구 출포자연생태공원)의 가을 정취를 알리고 방문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한 노을빛정원 가을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담은 부안 출포만 노을빛 가을정원의 가을빛과 추억’을 주제로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노을빛 정원의 가을 감성과 아름다움을 담아낸 작품 총 110점이 접수됐다.

전문 심사위원단은 주제표현성, 창의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1점

등 총 11점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 ‘출포만 정원’은 노을빛 정원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노을 아래 정원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수상작은 노을빛 정원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정원 내외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작은 부안 출포만 노을빛 정원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정원을 머무르고 체험하며 감성을 느끼는 장소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전북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부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도로정비 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도로포장 관리상태, 배수시설 정비, 도로변 환경정비, 안전시설 정비, 도로표지 정비, 도로행정 업무관리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부안군은 노후도로 정비 및 포장보

수 확대, 배수시설 정비, 도로변 잡초 제거·불법 적치물 정비 등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수상은 현장 중심의 도로관리와 군민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결과”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겨울철을 맞아 신속 대응을 위해 제설장비 정비 및 제설재 사정확보 등 자연재해 선제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월동 대책에 힘쓰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연안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 합동 점검

부안군은 지난 11일 격포항에서 군 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안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운항관리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내 연안 여객선 2척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도래에 따라 해상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고발생 위험성도 함께 높아짐에 따라 연안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과 종사자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합동점검은 관계기관 전

문가들이 직접 격포항에 방문하여 여객선의 항해 및 기관, 통신, 구명설비 등에 대한 설치기준 적합성과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했으며 운항 종사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연안 여객선 사고예방 합동점검을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운항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